

#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Household Work's Valu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文 淑 才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 — 목 차 —

I. 서론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II. 이론적 배경	IV. 결과 및 해석
1.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수행	1.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수행
2.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2.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
III. 연구방법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
1. 연구문제의 설정	V. 요약 및 결론
2. 조사도구	참고문헌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 ABSTRACT =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household work's value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method for this purpose. 297 couples for questionnaire and 20 couples for interview were sampl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paired t-test, t-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wives played primary role in doing household work.
- 2) The level of husbands's social value perception of household work was higher than wives's,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 3) The level of economical value perception of household work between husbands and wives was lower than the level of their social value perception.

\*본 논문은 199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I. 서론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 생산은 가사노동과 동일한 시간리듬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등이 가족구성원의 생산주기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그 자체가 가치있는 생산활동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노동의 장소가 분리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리듬이 분리되어 가정은 생산이 아닌 소비를 위한 장소가 되어졌고, 전통사회와는 달리 사회적 생산노동과 격리된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적인 봉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이윤의 극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결합되어 주부가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가 되면서(김혜경, 1985) 주부는 인간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의 가치를 화폐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가사노동의 무불적(unpaid)특성은 주부를 남편과는 달리 사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소비자의 역할만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부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직접 획득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 일시적 또는 최저의 기반에서 획득되는 대리적 지위만을 보장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의 상해, 사망시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고 있으며, 부부간의 이혼시 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해 주려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도 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의 재산축적에 경제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도 주부는 자신의 명목이 아닌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금

수급도중 친족관계가 종료되면 그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직업(심지어 일시적이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로 화폐 수입은 물론 그 외의 여러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부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며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자신만이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진 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부의 일인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릇되게 평가받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일찌기 Shirmacher(1979)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주부의 지위가 열등하며 차별적인 이유는 바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데에서 기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사노동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재평가해야 하며, 국민경제적인 생산활동으로 규정해서 가사노동을 법적,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그 댓가를 지불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주부들이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며 또한 사회에서도 주부들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주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2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가사노동의 주된 수행자인 주부뿐 아니라 주부의 일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자인 남편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주부만을 대상으로 가치인식을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질적(qualitative) 연구방법인 면접법을 이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양적(quantitative) 연구방법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은 “깊고”, “폭넓게” 조사된다. 즉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은 면접에서 얻어진 생생한 자료의 인용에 의해 심층적으로 이해되며, 질문지에서 나타나지 않은 생각들은 면접을 통하여 밝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부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적인 근거로써 부부의 가사노동수행실태를 조사한 후, 가사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부가 갖고 있는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인식을 표면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수행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지켜지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은 남편의 집안일 참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는 여전히 주부이다.

주부가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연구

한 국내외의 연구들(윤복자, 1975 ; 이정수, 1984 ; 문숙재, 정영금, 1988 ; Sanik, 1981 ; Nickols & Karon, 1980 ; Walker, 1967~68)은 이러한 사실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표 1과 표 2). 미국의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약 6~8시간,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약 8~10시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으며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의 향상과 기술혁신으로 가사노동을 경감시켜주는 많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와 80년대에 있어서 가사노동시간에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Walker(1969)는 가사노동의 몇몇 작업시간을 위한 시간요구는 감소한 반면 다른 작업(예를 들자면, 자녀돌보기)을 위한 시간수요가 증가 하였으므로 시간사용의 내용은 변화하였지만 총노동시간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녀의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초래되는 자녀양육시간의 증가, 시장에서의 상품선택에 소비되는 시간의 증가, 가정이 소유한 자원관리에 소비되는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은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결과(Michel, 장정순 역, 1989)는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에 관해

표 1. 우리나라 주부의 1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 시간/일)

연구	윤복자 (1975)		안영희 (1977)		임정빈* (1981)		이정수* (1984)	이정수, 고경애* (1985)	김애실*2 (1985)	최명숙*3 (1987)			문숙재, 정영금 (1988)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균	서울	부산	평균
식생활관리	2.6	2.6	4.2	4.1	4.7	5.1	3.7	3.4	3.8	3.6	3.2	3.6	2.7	2.7	2.7
수생활관리	1.1	1.0	1.3	1.6	1.7	1.9	1.1	1.0	1.2	1.2	1.1	1.2	1.7	1.7	1.7
의생활관리	1.7	1.5	1.4	1.3	2.1	2.4	1.4	1.1	1.2	1.3	1.0	1.3	1.5	1.5	1.5
가족관리	2.4	1.8	0.7	0.7	1.9	2.4	3.3	3.2	3.2	1.2	0.9	1.2	1.4	1.3	1.1
경영및장보기	0.6	0.5	2.2 <sup>1</sup>	2.0	2.4	2.7	1.0	0.8	1.0	1.1	0.8	1.1	1.8	1.7	1.7
계	8.4	7.4	10.0	9.7	11.8	13.4	10.4	9.4	10.4	8.5	6.8	8.2	9.1	8.8	8.9

\*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1. 장보기, 주택손질 포함.
2. 자녀돌보기와 자녀교육을 모두 비신체적 관리로 보았으며, 가계부정리도 장보기에 속한다고 보았음.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표 2. 외국 주부의 1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일)

연구 가사노동 분 류	Walker (1967-68)		Hall & Schroeder (1968)			McCullough (1980)			Sanik (1981)		Nickols & Karon(1980)		Lewis & Sinclair (1981)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전체	utah	N.Y	oregon	67 <sup>2</sup>	77	도시	지방	
식생활관리	2.3	1.6	2.8	2.4	2.6	1.8			2.3	2.0	1.8	1.8	1.9
주생활관리	1.6	1.2	1.9	1.2	1.6	1.8			1.5	1.5	1.4	1.3	1.5
의생활관리	1.3	0.9	1.2	0.8	1.0	0.6			1.3	0.9	0.6	0.7	0.7
가족 관리	1.8	0.8	1.2	1.0	1.1	1.5			1.3	1.3	1.9	1.8	1.4
경영및장보기	1.0	0.8	0.7 <sup>1</sup>	0.6 <sup>1</sup>	0.7 <sup>1</sup>	0.9			1.0	1.1	1.1	1.2	1.1
계	8.0	5.3	7.7	6.0	7.0	6.6	7.6	6.9	7.4	6.8	6.8	6.6	6.6

1. 기타포함.

2. Walker & Wood(1976)의 연구 중 4인가족(부모 및 두자녀)의 평균을 재분석. Sanik(1977)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사노동시간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해 줄 아내가 생기므로 독신으로 지낼 때보다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벌게 된다. 즉 기혼 남성은 결혼함에 따라 가정에 대한 부양책임은 증가하지만 독신남성에 비해 더 적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선행연구(Wheeler & Arvey, 1981; Waker & Woods, 1976; Nye, 1976; 이정수, 1984; 이연주, 1984)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1)에서 밝혀진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8분이며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60분이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논의는 주부가 취업할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생기는가의 여부이다. Wheeler & Arvey(1981), 이정수(1984) 등은 주부의 취업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Nye(1976), Scanzoni(1980) 등은 주부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부가 취업한 가정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주부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이

남편보다는 제 3자, 예를 들어 가정부나 친척에 의해서 분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연주, 1984)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비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시간과 더불어 가사노동분담영역도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실태를 잘 나타내 준다.

문숙재(1980), 박인덕(1977) 등의 연구에 따르면 주부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가사항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인가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주로 집손질, 육체적으로 힘든 일, 육아 등에 집중되며(유시중, 1970)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이정우, 1972).

주부 역시 음식만들기, 설거지, 세탁, 다림질 등 여성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남편의 협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가구옮기기, 주택손질, 수리 등 남성적 활동, 육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남편의 협력을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송혜림, 198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부는 가사노동의 주된 수행자이며 남편은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입장에서 부분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수행상황은 남편과 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

적인 상황적 요소이다.

## 2.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 1)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

사회적 단위로서 기능하는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이 유지·발달되는 가정적 측면과 가정의 안정을 통한 사회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

가정의 일차적인 기능은 가족구성원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가사노동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 달성되므로 가사노동은 가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회의 성원을 보충하고, 성원의 사회화를 위한 1차적인 장으로 존재하며,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문숙재, 1986).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달되어 모든 산업부문이 기계화, 전문화되고, 사회제도는 관료제화 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기계적이고, 이해타산적이 되어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유영주, 1981). 이와 같이 이윤의 극대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의 숭배와, 기술발달을 따르지 못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허무, 고독, 절망, 위기 등을 느끼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은 '가정'이라는 '마음의 고향'에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은 그 노동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이 수행되고,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행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며, 나아가서 사회의 안녕, 질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명옥(1976), 한정자(1985) 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을 이루며,

자신의 일을 남편의 일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숙재(1980)에 따르면 가사노동이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편과 주부를 모두 조사한 박민자(1985), 김성희(1989)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주부보다 남편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그 인식의 주체가 주부와 남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 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생산물은 시장생산물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가정생산물의 투입요소인 가사노동은 그 성과에 대해 보수가 지불되지 않아 경제적 순환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가사노동은 실물경제의 순환이 종료되는 최종적 소비단계에서 소비를 위한 노동으로 간주되어(Hefferan, 1982) 소비활동으로 규정되어왔다.

Reid(1934)는 최초로 가사노동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개념화하였고, Becker(1976)는 가정은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에 인적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종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임을 밝힌바 있다. 한편 사회학자들 간에는 최근까지도 생산적 노동의 3가지 조건, 즉 사용가치, 교환가치, 잉여가치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Vogel, 1983 ; Costa, 1972 ; Smith, 1986) Costa와 같은 학자는 가사노동이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주장

하였다.

원래 생산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변형 및 개조 또는 가공하여 그것을 전과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와 용역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사노동은 생산활동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매행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가족들의 취향에 알맞게 변형시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또 변형된 재화를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가정관리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현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활동과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진다.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실제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그 측정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는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략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주부가 유급의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상실임금을 계산한다. 이때 주부는 자신이 시장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요구임금(reservation wage)(문숙재, 소연경, 1989)에 의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요구임금을 이용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에서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부들도 주부역할을 자신의 전직(full-time occupation)으로 선택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요구임금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면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며 취업주부들의 가사노동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단점을 수정할 수 있는 동시에 기회비용이 다른 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주부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대행한다고 가정하고 그 보수를 기준으로 한 상실비용을 계산한다. 이것은 가사노동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종사자의 급료나 임금을 기초로 고용비용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계산하기가 용이하여 학자들간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가사노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주부는 가정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고 관리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가정부나 단순서비스업 종사자보다 많은 종류의 일을 처리하므로 가정부나 파출부의 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과소평가하게 한다. 따라서 주부의 대체직업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주부가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에 의한 평가는 주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양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방법에 의해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측정한 국내의 선행연구결과는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를 실제로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는 일은 가정경제에 대한 주부의 기여정도를 파악하게 해주며 곧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의 설정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수행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편과 주부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남편과 주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표 3.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연구자 (연도)	김애실 (1985)	최명숙 (1986)	문숙재, 소연경(1989)		정영금 (1989)	한국여성개발원(1991)	
			전업주부	취업주부		남성	여성
요구임금 방법		466,130	347,980	729,201		403,081	
총합적대체 비용법	383,222 <sup>1</sup>	182,813 <sup>2</sup>			420,469 <sup>5</sup>	342,592 <sup>4</sup>	342,630 <sup>4</sup>
주관적평가 방법	461,207	298,380			502,391		423,999

1. 가사노동을 단순노동과 가정경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가정부 임금을, 후자에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총괄관리자의 임금을 적용(1983년 기준).
2. 파출부 임금 적용.
3. 파출부 임금 적용.
4. 조사대상자에게 주부가 하는 모든 일을 가정관리인이라는 직업인이 대신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질문을 한 후 응답된 화폐액을 평균하여 산출.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와 심층면접지로 이것은 조사대상자에 따라 남편용과 주부용으로 구분되었다.

조사된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부의 연령, 직업, 교육 수준과 가정소득, 가족수,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주택형태 등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포함되었다.

둘째, 남편과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하였는데 남편의 경우 평일보다 휴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므로(한국여성개발원, 1991)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가사노동의 분담영역도 조사하였다. 이때 가사노동의 영역의 분류는 문숙재(1986, 1990)의 분류방식을 기초로 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문숙재, 1982; 문숙재, 정영금, 1984; 김성희, 1989)를 기초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을 가정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각 측면에 대해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넷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4문항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이론적 고찰에서 밝힌 요구임금방법, 총합적대체비용법, 주관적평가방법의 각 평가방법에 따라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부부이다. 1990년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득, 연령, 주부의 취업상태를 고려한 50가정의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0가정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면접을 통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300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내용이 부실기재된 것과 분석자료로 적당치 못한 3쌍의 설문지를 제외한 297쌍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조사연구와는 별도로 가정관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0명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가정의 남편과 주부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심층면접을 행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원과 조사대상자간의 신뢰감(rapport) 형성이므로 조사대상이된 가정은 조사원들과 친분이 있는 가정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

려하여 선택되었다. 면접을 통해 얻어진 1차 자료를 분석한 후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응답을 하거나 소극적 혹은 무응답을 한 경우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차 면접을 행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면접시 이용된 설문은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문항과 기본구조는 동일하였지만 면접 조사원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도록 상황에 적절한 융통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심층적인 의식과 감정을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원에게는 면접이전에 사전교육을 시켰다.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소요되었으며 녹음된 면접내용은 내용분석을 위해 다시 정리되었다.

자료의 분석에는 빈도, 평균, 백분율, paired t-test, t-test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연구가 행해진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은 30대가 남편의 경우 43.7%, 주부의 경우 34.0%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남편이 41.4세, 주부가 38.2세였으며, 평균결혼지속년수는 13.5년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의 79.7%, 주부의 55.1%가 고졸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수는 2명 정도(평균 1.7명)인 4명의 가족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평균 3.7명) 막내자녀의 연령은 유아기(0~3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4.3%).

월평균소득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소득은 149.8만원이었고, 주택유형은 의도적인 표집에 의해 단독주택(47.3%)과 집합주택(52.7%)에 살고 있는 비율이 비슷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2.6%), 취업주부의 비율은 34.3%로 전업주부가 많았다. 전업주부 중 취업경험이 있는 주부는 44.3%였다.

한편 심층면접이 행해진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남편은 45.35세, 주부는 42.45세로 조사연구 가정보다 약간 높았다. 교육수

준은 대졸이상의 남편이 75.0%, 주부가 65.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지속년수는 17.4년이었다.

가족구성원은 자녀수가 2명인 4명의 핵가족이 가장 많았고(35.0%), 막내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교시기(14~19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45.0%). 가정소득은 월평균 168.25만원이었고,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같았다.

남편의 직업은 관리직이 가장 많았고(45.0%), 직업을 갖고 있는 주부는 40.0%이었으며, 12명의 전업주부중 취업경험을 가진 주부는 5명이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

#### 1)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조사연구와 심층면접자료의 분석에 의한 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평일에 주부가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평균시간은 9.2시간으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긴 노동시간이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부의 취업은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 중의 하나로 취업은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제약요인(constraint)으로 알려지고 있다.

Hafstrom과 Shram(1983)의 연구에 따르면 주부가 주당 40시간 취업노동을 할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2~5시간 적어진다.

표 4. 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

	전업주부	취업주부
식생활관리	3.7	3.0
주생활관리	1.5	1.1
의생활관리	1.4	0.9
가족관리*	2.5	1.4
경영 및 장보기	1.3	1.6
계	10.4	8.0

\* 가족관리에는 자녀돌보기만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 관리였다. 전업주부의 경우 식생활관리 다음으로 는 가족관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고 다른 영역의 가사노동시간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 가족관리와 경영 및 장 보기 영역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노동적인 영역은 감소시키고 관리적인 측면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활시간분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식은 하나의 시간관리전략(time management strategy) (Strober & Weinberg, 1980)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결과는 가사노동이 주부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부분임을 나타내준다.

## 2)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조사연구에서 주부와 남편 자신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영역별로 살펴보기에는 너무 적어서 전체시간만을 조사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관찰이나 생활시간표를 분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평가한 시간이므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주부가 평가한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37분, 휴일의 경우 98분이었고, 남편자신이 평가한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42분, 101분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분석자료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분포가 0분에서 16시간(수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이르므로 심리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5.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N=297 빈도(%)

요일 시간	평 일		휴 일	
	빈 도	%	빈 도	%
0분	82(78)	27.6(26.3)	40(45)	13.5(15.2)
10분	0(18)	6.7( 6.0)	· ·	· ·
20분	26(15)	8.8( 5.1)	· ·	· ·
30분	66(64)	22.2(21.5)	58(46)	19.5(15.4)
40분	10( 7)	3.3( 2.4)	· ·	· ·
50분	2( 3)	0.7( 1.0)	· ·	· ·
60분	59(75)	19.9(25.3)	63(73)	21.2(24.6)
2시간	22(24)	7.4( 8.1)	61(63)	20.5(21.2)
3시간	8( 9)	2.7( 3.1)	39(39)	13.1(13.2)
4시간	1( 4)	0.3( 1.3)	16(14)	5.4( 4.7)
5시간	· ·	· ·	15( 6)	5.0( 2.0)
6시간	1( 4)	0.3 ·	2( 5)	0.7( 1.7)
7시간	· ·	· ·	1 ·	0.3 ·
8시간	· ·	· ·	2( 1)	0.7( 0.3)
9시간	· ·	· ·	· ( 1)	· ( 0.3)
10시간	· ·	· ·	· ( 2)	· ( 0.7)
16시간	· ·	· ·	· ( 2)	· ( 0.7)

( ) 안의 숫자는 남편이 평가한 빈도와 %를 나타낸다.

\* missing data에 의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또한 주부가 취업할 경우 남편의 도움이 증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임금노동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수행해야하므로 전체 노동시간에 따른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부에게 남편이 어떠한 가사노동을 잘 도와주는가를 질문했을 때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평균값과 응답분포를 고려한다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어쩌다가 가끔 돕는(월 1~3번)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편이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사노동은 자녀들 봐주기이며, 그 다음은 주택손질 및 수리, 집안청소, 시장보기, 경영 등의 순이며, 잘 도와주지 않는 가사노동은 다림질 및 옷수선, 세탁, 음식만들기, 식사준비 및 설겅이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전통적으로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된다는 선행

표 6.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N=297 빈도(%)

가사노동영역	참여수준 전적으로 말 아 함	거 의 매일도움	도와주는 편(일주일 에1-3번)	어쩌다 가끔도움 (월1-3번)	전 혀 도와주지 않 음	도와주는 정 도	도와주는 순 서
음식만들기	3 ( 1.0)	1 ( 0.3)	34 (11.6)	76 (25.9)	179 (61.2)	1.59	7
식사준비 및 설거이	4 ( 1.4)	8 ( 2.7)	36 (12.2)	85 (28.8)	162 (54.9)	1.69	6
세 탁	5 ( 1.7)	3 ( 1.0)	28 ( 9.6)	52 (17.8)	204 (69.9)	1.54	8
다림질 및 옷수선	6 ( 2.1)	5 ( 1.7)	13 ( 4.5)	42 (14.4)	226 (77.3)	1.44	9
주택손질 및 수리	42 (14.4)	11 ( 3.8)	66 (22.6)	90 (30.8)	83 (28.4)	2.54	2
집안청소	6 ( 2.0)	18 ( 6.1)	59 (20.0)	86 (29.2)	126 (42.7)	1.98	3
자녀돌봐주기	3 ( 1.2)	47 (18.9)	75 (30.1)	55 (22.1)	69 (27.7)	3.28	1
경 영	7 ( 2.5)	4 ( 1.4)	26 ( 9.3)	43 (15.4)	200 (71.4)	1.84	5
시장보기	4 ( 1.4)	3 ( 1.0)	54 (18.3)	116 (39.3)	118 (40.0)	1.87	4

\* missing data에 의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심층면접 결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엌일을 좋아해서” 주부의 일중 설거이, 청소, 빨래까지 도와주는 (사례13)의 남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잘 도와주는 편이지만” 시간으로는 평일에 30분 정도, 휴일에는 1~2시간을 넘지 않으며, 자신과 관련된 일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11)의 주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편에게는 애당초 부엌일이나 집안살림같은 여자일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벗은 옷을 제자리에 놔두거나 담배를 피운 재떨이를 치우지 않는 것에는 짜증이 난다.” (사례11)의 주부.

따라서 “하다못해 이부자리만이라도 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부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부들이 자신이 하기 힘든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등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례

11)의 주부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자가 해야 하는 일로 생각되는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사례16)의 주부의 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집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보면 좋아보인다. 힘든 일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부엌일을 하거나 애들 세수시키거나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사례16)의 주부.

이것은 가사노동이란 주부, 즉 여자의 일이라고 주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은 남편의 경우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서 남편들은 솔직하게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설거이, 빨래, 청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사례3)의 남편.

“구체적인 구분은 없지만 남자일과 여자가

할일은 구분해서 도와준다. 주로 잘 도와주는 일은 시장보기로 거의 같이 가서 구매하고, 정원가꾸기나 화초에 물주기등은 내가 다 도맡아서 한다. 그러나 설것이, 밥짓기, 청소 등은 전혀 안한다. 그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사례16)의 남편.

결국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주부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쉽다.

“내 일도 아니지만 그냥 힘들어 보이고 짜증 내니까 좀 편하라고 해준다.” (사례18)의 남편.

“그냥 해달라니까 해준다.” (사례8)의 남편.

이러한 주부와 남편의 인식으로 인해 어떤 남편이 주부일을 하는 것은 (사례5)의 남편의 말처럼 남편이나 주부 모두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남의 집에서 남편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면 그 집을 홍보게 된다. 그 집 여자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칠칠치 못한 사람이거나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독한 여자로 생각된다. 남자도 칠칠치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사례5)의 남편.

이와 같은 진술은 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자녀돌보기는 “남편자신이 즐거워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와 같은 사회적인 비난에 맞서서 남편이 자진해서 참여해야 하는 유일한 영역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부이외의 자녀양육자가 가정내에서 다수 존재하였던 확대가족과는 대조적으로 핵가족내에서는 남편이 이차적인 부양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들은 다른 익숙하지 않은 혹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녀돌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Oakley, 문숙재 역, 1991). 그러나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다가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집에 부인이 있으면

자녀양육일을 부인에게 미뤄버리게 된다(김미하, 1990).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편리품이 가정내에 보급되고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주부는 여전히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부가 취업을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부의 역할이 가정내로부터 가정외부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정내 역할에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일차적으로 남성인 남편이 아니라 여성인 주부의 일이라는 생각을 남편뿐 아니라 주부 역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저조하며 부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해준다.

## 2.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

조사연구에서 남편과 주부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총점이 15점이고 중간점수가 9점이므로 측정치의 평균을 고려할 때 남편과 주부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남편이 주부의 평균점수보다 약간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중 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남편과 주부 모두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분포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심층면접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19)의 주부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가치있는 일이다. 가치를 따질 수가 있겠는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지... 남자들은 그저 가사일을 물이나

표 7.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 점수

집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최저점~최고점	평균(X)	표준편차(SD)
남편	가정적 측면	8 ~ 15	13.37	1.76
	사회적 측면	7 ~ 15	11.94	2.05
	전 체	15 ~ 30	25.31	3.36
주부	가정적 측면	7 ~ 15	13.24	1.88
	사회적 측면	5 ~ 15	11.84	2.20
	전 체	12 ~ 30	25.08	3.62

표 8.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태도

N=297 빈도(%)

측면	문항	남편					주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정적 측면									
가정적 측면	내(주부)가 매일 하는 가사일은 나의 가정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149 (50.3)	131 (44.3)	16 (5.4)	· ·	· ·	143 (48.1)	127 (42.8)	23 (7.7)	3 (1.0)	1 (0.3)
	가사일은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162 (54.7)	114 (38.5)	18 (6.1)	2 (0.7)	· ·	154 (51.9)	124 (41.8)	18 (6.1)	1 (0.3)	·
	가사일은 가족들의 내일의 활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152 (51.4)	128 (43.2)	13 (4.4)	3 (1.0)	· ·	152 (51.2)	123 (41.1)	17 (5.7)	4 (1.3)	1 (0.3)
사회적 측면	가사일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결코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110 (37.2)	134 (45.3)	44 (14.9)	8 (2.7)	· ·	100 (33.7)	137 (46.1)	45 (15.2)	15 (5.1)	· ·
	가사일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일이다.	77 (26.1)	135 (45.8)	73 (24.7)	8 (2.7)	2 (0.7)	71 (23.9)	156 (52.5)	51 (17.2)	14 (4.7)	5 (1.7)
	가사일은 집안의 생활방식을 대대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회문화를 전승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63 (21.3)	148 (50.0)	61 (20.6)	22 (7.4)	2 (0.7)	66 (22.2)	140 (47.1)	67 (22.6)	23 (7.7)	1 (0.3)

\* missing data에 의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공기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막상 없으면 살 수 없으면서도 당장 그게 그렇게 설실히 필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 막상 가사일이 없어져 보라.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남자들이 활동하는 사회의 기본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가사일이 안 이루어지면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가족원의 건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주부하기에 달려 있다. 식사준비해주고, 편히 쉬도록 청소해서 분위기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또 출근하는데 지장없도록 빨래해서 다려주고 하는 일들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면에서 가정내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례19)의 주부.

이러한 (사례19)의 주부의 진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사례19)의 주부의 말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나 공기가 갖는 가치로 비유된다. 그것은 가사노동이란 “꼭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야 비로소 그 진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번에 한번 아내가 크게 아팠다. 그때 주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 챙기고 밥먹고 회사 출근하니까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늑초가 됐다. 가사일이 힘들고 중요하며 아내가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었다.” (사례13)의 남편.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남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주부들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주된 수행자이므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글쎄, 가치랄게 뭐 있겠는가? 잘 모르겠다. (가사일이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만사형통이고 사회도 안정된다.” (사례1)의 남편.

이와같은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유도된 질문에 의해 인식되기 쉽다. 즉 직접적인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질문이 주어진 후, 특히 남편들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열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가사노동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어진다고 보다는 “가사노동은 가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므로 당연히 가정을 위한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노동”이라는 논리에서 2차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이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까?”라는 부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는 가사노동이 사회적 측면에서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사례1)의 주부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가사노동이 갖는 가치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즉 가사노동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인식이 가정적 측면에 비해 낮았던 실태에 대한 원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

조사연구에서 남편과 주부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의 총점이 20점이고 중간점수는 12점이므로 평균값을 고려한다면 남편과 주부 모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주부가 남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인

표 9.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 점수

집단	최저점~최고점	평균(X)	표준편차(SD)
남편	4 ~ 20	14.76	2.78
주부	10 ~ 20	15.22	2.82
T = 2.13*			

\* p<.05

식상의 차이는 paired t-test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문문항에 대한 자세한 응답분포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의 재산증식 기여는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사노동의 생산적인 가치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더우기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국가경제에의 기여는 훨씬 부정되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희(1989)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인데 김성희는 이것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극히 사적인 것에 그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사일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사먹거나 사서 입어야 할 것이다. 내가 가사를 안하고 돈을 주고 가정을 고용한다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가사일을 직접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좀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4)의 주부.

위의 주부는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를 스스로 언급한 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 직접 질문을 하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가사일을 꼭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까? 주부의 사랑과 희생을 꼭 돈으로 따져야 가사일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요즘 왜 그렇게 가사일을 가지고 돈으로 따지느니 마

표 10.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태도 N=297 빈도(%)

문항	남편					주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남자들의 일처럼 가사일은 생산적인 일이다.	41 (13.9)	128 (43.2)	89 (30.1)	31 (10.5)	7 (2.4)	60 (20.2)	137 (46.1)	63 (21.2)	32 (10.8)	5 (1.7)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할수록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주부가 가사일을 많이하는 것도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	39 (13.2)	99 (33.4)	102 (34.5)	51 (17.2)	5 (1.7)	46 (15.5)	111 (37.4)	89 (30.0)	42 (14.1)	9 (3.0)
주부가 손수 가사일을 하면 생활비를 절약하므로 남편이 돈을 버는것과 마찬가지다.	69 (23.3)	162 (54.7)	43 (14.5)	19 (6.4)	3 (1.0)	97 (32.7)	140 (47.1)	46 (15.5)	11 (3.7)	3 (1.0)
우리집 재산은 남편이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내(주부)가 살림을 잘해서 모은 것이다.	62 (20.9)	165 (55.7)	53 (17.9)	14 (4.7)	2 (0.7)	80 (27.0)	147 (49.7)	49 (16.6)	17 (5.7)	3 (1.0)

\* missing data에 의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노니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신문에서도 그렇고 여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당당하게 가사일을 하고 집에만 파묻히지 말고 책도 좀 읽고 연극 구경도 하고 신문도 보고 하면서 가사일을 하면 누가 뭐랄까,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랬는데 남편도 자식들도 몰라준다고 푸념만 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 설사 화폐적인 가치가 있을지라도 별로 화폐로 따지고 싶지 않다. 돈으로 따지지 않아도 가사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례14)의 주부

이러한 주장에는 가사노동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결국 생산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회복을 주부 자신의 인식변화나 가정의부 활동에의 참여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례14)의 주부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부들은, 심지어 “생산이 아닌 소비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부들까지도, 가사노동의 생산적 측면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 인식으로는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 살림이 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부도 상당수 있었다.

(사례14)의 주부와 동일한 의견은 오히려 남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사일은 남자들처럼 돈을 버는 일) 아니다.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사일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사례9)의 남편.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소극

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남편들은 가사노동의 화폐가치평가에 관한 질문에 달하면 분노 내지 좌절감을 표현한다.

“주부의 일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사회라지만 별걸 다 돈으로 계산한다.” (사례9)의 남편.

“돈으로 계산하기 싫다. 그냥 주부니까 가정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으로 돈을 따져서 누구한테 받아내려고 그러는가? 나한테 받아내려고 하는가? 꼬박꼬박 생활비와 돈을 갖다주는데 그것이면 됐다.” (사례8)의 남편.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화폐적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가사일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삭막하게 느껴진다.” (사례14)의 남편.

주부와는 달리 이러한 이유로 가사노동의 화폐 가치를 산정하지 않은 3명의 남편을 제외하고 조사연구결과와 함께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던 심층면접의 결과를 볼때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는 상당 부분이 진정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내려진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사노동의 가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가사노동의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은 총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해서였다.

표 11.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방법	남 편		주 부	
	최 저-최 고	평 균	최 저-최 고	평 균
주관적 평가방법	5만원-300만원	605,115원	10만원-250만원	565,365원
총합적대체비용법	5만원-150만원	522,050원	10만원-102만원	489,954원
요 구 임 금 법	20만원-200만원	694,837원	20만원-300만원	712,480원

이것은 “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라는 가정적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대체직업을 “파출부”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가정에서 주부가 만일 가사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파출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출부의 고용비용이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특성을 남편과 주부 모두 파출부의 일과는 구분되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파출부의 임금과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Oakley(1974)의 말처럼 주부의 가사노동에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지는 측면과 낮게 평가되어지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부직에 상응할만한 대체직의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과 실제적인 평가 간에 차이가 생기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심층적인 가치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진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질문지법과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얻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가 평일에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평균 10.4시간,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8.0시간으로 평균 9.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평균 37분, 휴일의 경우 평균 98분으로 주부에 비해 매우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시간에 소비하고 있었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어찌다가 가끔 돕는(월 1~3번) 수준으로 전통적으로 남자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수준은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인식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가치인식은 주부보다는 남편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중 가사노동이 가정적 측면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가치보다 높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의 자료분석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물이나 공기처럼 평상시에는 잘 인식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질문을 한 후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의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만이 언급되었을 뿐, 가사노동이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갖는 가치에 관해서는 인식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 인식점수는 낮지만, 남편 주부 모두 질문에 의한 조사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는 대조적으로 남편보다 주부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심층면접결과 남편과 주부 모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는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의해 가정경제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이 곧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보였다. 가사노동에 의한 국민경제적 기여는 더욱 부정되기 쉬우며 나아가 가사노동의 화폐가치산정에 대한 주부와 달리 남편은 거부적인 경우가 많았다.

넷째,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는 주관적 평가방법의 경우 565,865원, 총합적대체비용법의 경우 489,954원, 요구임금법의 경우 712,480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내 가사노동 수행실태를 보면 생활수준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주부의 역할이 가정외부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주부의 주된 생활경험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반면 남편의 가정내 역할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뿐 아니라 주부 스스로도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참여영역은 그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둘째, “가사노동=집안 일”이라는 일반적인 등식은 가사노동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노동으로 인식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심층면접에서 응답자 중 처음부터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와 연결시켜서 대답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에서 분명해진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그 사회적 가치가 명백히 인식되는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사적인 봉사이므로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가족원의 감사의 말, 주부의 자기충족감 등의 가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 나아가 화폐가치의 평가는 가사노동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로 간주된다.

셋째, 가시적인 생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은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식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절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은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의 수행자인 주부의 역할이 갖는 가치들은 폐시킴으로써 과소평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남편과 주부는 서로 다른 가사노동의 수행상황에 있으므로 가사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참여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주부의 요구에 의해서, 주부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사노동의 책임자인 주부와는 달리, 남편은 가사노동에 대해 피상

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사노동은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질문이 주어지지 않는 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가사노동을 남편은 아무런 저항이나 느낌없이 주부의 손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사실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남편의 높은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질문지 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층면접에서는, 자신의 일인 가사노동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가사노동이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노동이며, 자신의 내조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이 많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여섯째, 심층면접에서 조사대상자들(특히 남편)이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산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보여준 부정적인 견해를 고려할 때, 심층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가사노동의 화폐가치액은 진정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문에 의해 유도된 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주부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근거는 파출부나 가정부의 임금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가사노동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의 한 단면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질문지에 의한 조사결과와 심층면접에 의한 조사결과 간의 일치성과 차이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법론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또한 조사연구의 표면적인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안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둬으로써 제 변수와의 관련성과 부부가 서로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위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미하·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남성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까치, 217.
- 2) 김성희(1989).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3)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제3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25-47.
- 4)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5)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7집, 351-369.
- 6) 문숙재(1988). 가정생산 -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 서울: 신광출판사.
- 7) 문숙재·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8) 박인덕(1977).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역할에 관한 조사. 아세아여성연구 제16집.
- 9) 박인자(1985). 가사노동에 관한 예비연구. 학생지도연구, 39-56.
- 10) 소연경·문숙재(1989).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9-138.
- 11)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대출판부, 247-248.
- 12)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 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3) 유시중(197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 - 기대와 실재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 논문집 제17집.
- 14)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22(4), 131-145.
- 15)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16) 임정빈·김명희(1984).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3-33.
- 17)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최명숙(1986).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7-108.
- 19)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20-130.
- 20) 한정자(1985). 도시주부들의 가치관 연구. 여성연구 제3권 3호, 62-97.
- 21) Andre, R. 한국여성개발원(역)(1987). 가정주부 -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 한국여성개발원 35.
- 22) Oakley, A., 문숙재(역)(1991).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신광출판사.
- 23) Hafstrom, J.S. & Schram V.R.(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 24) Hefferan, C.(1982). What is a homemaker's job worth: Too Many Answers. Journal of Home Economics. Fall, 30-33.
- 25) Michel, A.(1978). Introduction. Les femmes dans la societe Marchande. paris: PUF, 16-17.
- 26) Nickols, S.Y. & Metzen, E.J.(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85-97.
- 27)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75-180.
- 28) Strob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7.
- 29) Walker, K. E.(1969).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ournal of Home Economics 61(8), 621-624.
- 30) Walker, K.E. & Woods, M.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New York: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1) Wheeler, C.L. & R.D.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September, 10-20.